

초대합니다.

남여대협 총회를 10만 청춘의 뜨거운 가슴으로!

여학생운동 10년의 역사 속에
당당히 투쟁해왔던 남여대협이
11년을 맞이하여 창립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민중의 아픔에 함께해왔고
윤금이, 이기순, 허주연씨의 투쟁에 최선봉에 달렸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힘겨운 투쟁에도 한길을 달려온 남여대협이
다시 한번 민족자주를 향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항일여성전사의 후예로서 오월여성의 후예로서 98년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민족의 자주권이 외세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는 시점에서
수수방관이 아닌 여성민중들의 눈빛으로
당당한 투쟁을 통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첫 포문을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창립총회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자주의 시대를 개척하라 여성민중의 눈빛으로!

오월의 딸 자주의 새바람 11기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1부 “자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남녘의 딸들”

• 개막 축하공연 및 대표자 옹립

2부 • 남여대협 총회

• 새내기 한마당

• 과여부장 학교

3부 “반미자주의 선봉으로 우뚝서라”

• 모범상 시상 및 의장 옹립

언제 • 반미자주의의 해 4월 8일(수) 늦은 2시부터

어디서 • 민족 **광주대학교** 교정